

마음의 통합을 위한 남북한주민 가치관 비교 물질-탈물질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최순미(북한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적 요소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과 함께 살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를 비교해보고,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여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이 탈물질주의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물질-탈물질주의는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이 3.08, 남한주민 평균은 3.10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문항의 응답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하위문항은 3가지이다. ‘국가 경제 성장보다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국가 질서 유지보다 개인 자유 존중이 더 중요하다’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문항에서는 남한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더 높았다. 아울러 두 집단의 물질-탈물질주의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은 연령이 어릴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탈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고, 남한주민은 정치적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4S1A3A2043571).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탈물질주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물질주의보다 탈물질주의가 통합적 마음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은 바, 첫째, 높은 연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체제 이행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지속적인 교육, 둘째, 물질주의를 뛰어넘는 탈물질적 통일 당위성 논리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노력 등을 통해 남북한주민이 탈물질주의로 이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남북한, 사회통합, 마음통합, 물질주의, 탈물질주의, 잉글하트

1. 서론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필요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32.3%, ‘가급적 빨리’라고 답한 비율이 16.9%, ‘서두를 필요없다’라는 응답이 50.8%로 나타났다.¹⁾ 이와 같은 결과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중의 통일 무용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상당수임을 보여준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 땅에서는 이미 ‘사람의 통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²⁾ 우리는 먼저 들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남북한주민의

1)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2016).

2) 통일부는 2016년 11월 11일 기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 숫자는 3만 5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동아일보』, 2016년 11월 14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마음의 통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³⁾ 즉, 체제의 통합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귀결되는 사람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의 통합이 중요한 이유는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정치이념이나 가치관의 차이, 개인적 취향이나 감정 등 다양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분단 이후 남북한은 이념뿐만 아니라 감정, 사고방식, 가치관 등에서도 ‘차이’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구성된 마음적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통합문제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어려울 것이다.⁴⁾

또한 마음의 통합은 그 차이를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① 서로를 인지하고, ②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쳐, ③ 다름을 인정하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동안 남북한/통일 분야에서 심리적 통합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역시 제도적, 이념적 통합에 치우쳐 왔다는 한계가 있다.⁵⁾ 특히 기존 학계의 연구 및 정부 정책들이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알고자 노력하기보다 남한 중심적 사고로 남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해 왔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두 집단 모두의 마음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양계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3호(2015); 양계민·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2권 1호(2016);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2016).

4)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잇기』(서울: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7쪽.

5) 위의 책, 6쪽.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가치관은 인간의 마음이 나타나는 감정, 이성, 태도 등과 더불어 국가관, 사회통합에 대한 태도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⁶⁾ 남북한 주민의 마음을 파악하기 위해 중요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방법으로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라, 기존 사회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각 분야의 개념으로 연구되어온 것이며, 가치관 역시 그중 하나이다. 그런데 기존의 학문적 개념을 굳이 다시 ‘마음’으로 엮어내는 이유는 첫째, ‘마음’이라는 개념이 마음적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이며, 둘째, 사회통합의 궁극적 형태가 행위자들의 마음의 통합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마음적 요소로서 물질-탈물질주의의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물질-탈물질주의는 원래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설명하는 가치관으로, 탈근대적 가치의 일부이며, 나아가서 정치, 노동, 가족생활, 종교, 성행동 등에 대한 가치지향의 변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물론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를 두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으나, 가치이행의 단계로 보면,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가치이행이 민주적 규범과 가치의 사회화에 더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⁷⁾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물질-탈물질주의는 통일에 대한 마음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다. 예컨대 ‘남북통일’이라는 사안을 앞에 두고 경제

6) 김명숙, “물질주의-탈물질주의의 영향요인과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1호(2008).

7) 정철희, “문화적 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1995), 246~256쪽.

의 논리로 해석하는 물질주의와, 통일비용과 같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신적 가치로써의 통일을 추구하는 탈물질주의는 통일에 대한 전혀 다른 의식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들은 물질주의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이기성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⁸⁾

또한 탈물질주의 가치는 탈부르주아적 가치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정치 지형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즉, 서구 사회에서 경제, 계급 등의 기준으로 인한 지지가 아닌 가치의 선호에 따르는 추세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개인의 가치관으로써 탈물질주의의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물질-탈물질주의 가치관은 남북한 주민 마음의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남북한주민 마음의 통합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를 비교해보고,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석하였다.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해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이 탈물질주의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8) Richins, Marsha L., and Scott Dawson,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9, No. 3(1992), pp. 303~316; 김형길·김정희,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측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9(1994), 375~396쪽.

2. 이론적 논의

1) 가치이행으로의 물질-탈물질주의

미국의 경제학자인 잉글하트(Inglehart)는 개인이 물질적 소유물 대신에 비물질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로 post-물질주의 사회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를 구분하였다.⁹⁾ 잉글하트에 의하면, 물질주의는 경제적 요소를 강조하는 경제주의적 태도를 뜻하는데, 물질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경제적 요소는 물가, 인플레이 억제와 사회질서 유지 등이 있다. 반면, 탈물질주의는 문화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탈물질주의가 우선시하는 요소는 경제적 요소 외에 언론 자유 보장,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여론 수렴 등이 있다.¹⁰⁾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에 대한 잉글하트의 규정은 역사와 사회변동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근대화에서 탈근대화로의 이행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등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크게 두 가지의 가설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다. 하나는 희소성의 가설(scarcity hypothesis)로써 이는 경제적인 측면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희소성을 지닌 것들에 대해서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

9) Ronald Inglehart, "Post-materialism in a Environment of Insecu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December, 1981), pp. 880~900.

10) 박종민·왕재선·김영철, "환경적 가치와 신념의 근원: 탈물질주의, 정치이념 및 문화 편향,"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5), 388~407쪽;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 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2005), 193~217쪽.

한 잉글하트의 이론적 논의는 개인의 동기적 위계에 관한 매슬로우(Maslow)의 연구에 기반하고 있다.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은 날 때부터 타고난 두 세력을 생존적 경향(survival tendency)과 실현적 경향(actualizing tendency)의 둘로 상정하고 있다. 생존적 경향은 욕구동기(deprivation motivation)라고도 하는데, 이는 인간의 생성을 단순히 생리적인 차원에서 유지시키려는 경향으로 이에 음식이나 물을 필요로 하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육체적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안전욕구(safety needs), 남들과 가까이 하고 동일시하고자 하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needs for belongingness and love)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나열된 순서대로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기를 바리는데 이 욕구들이 충족된 후에 비로소 인간의 실현적 경향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이 실현적 경향은 성장동기(growth motivation)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시키려고 하는 자아실현적 욕구(need for self-actualization)와 정보나 자극을 구하는 인지이해적 욕구(need for cognitive understanding)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매슬로우는 이 두 경향 사이에는 어떤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존적 경향이 어느 정도 충족된 연후에 실현적 경향이 작동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¹¹⁾

잉글하트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 경제적 풍요가 충분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시대에는 경제적인 안정이나 부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었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면 점차 시민들은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만족이라든가 자아의 실현과 같은 탈물질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보다 높은 선호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1) 전병재, 『인간과 사회』(서울: 경문사, 1997), 268~269쪽.

두 번째 가설은 문화적인 측면의 사회화 가설(socialization hypothesis)이다.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가치체계는 성인기가 되기 이전에 형성되며 사회 환경과 가치관의 문제는 즉각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는 점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잉글하트는 서유럽에서 1960년대 또는 1950년대의 고도 성장기에 성장한 젊은 세대들은 성장기에 엄청난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같은 물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적인 만족이나 삶의 질과 같은 문제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이행의 맥락은 통일에 대한 마음에서 물질-탈물질주의가 갖는 의미를 역사적 맥락과 생애사적 관점으로 고민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가치가 각각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해 탈물질주의 가치로의 이행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인의 물질-탈물질주의 영향 요인

마인섭(1995) 등은 한국사회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성장 메커니즘을 경제적 풍요와 세대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는 196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와 같은 가치보다는 개인의 여가, 삶의 질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는 것을 밝히고, 한국 사회의 가치관 변화의 요인으로서의 세대를 강조한다.¹²⁾

또한 정철희(1997) 역시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사회민주화를 증진시

킨다고 지적하고, 특히 연령집단이 낮을수록, 즉, 젊은 세대일수록 탈물질주의자가 증가하고 이러한 방향의 가치변동은 비재래적 정치 행동과 자원적 결사체에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민주화를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의 가치변화는 사회민주화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의 핵심 요인이 바로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라는 것이다.¹³⁾

또한 나은영·민경환(1998)은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이의 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이들은 한국 문화의 이중성, 즉 명시적/공식적 규범과 암묵적/비공식적 행동원리 간 불일치의 저변에는 근대적 규범과 유교적 관행간의 불일치,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의 발달, 의사소통 구조의 이중성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세대 차이를 언급한다.¹⁴⁾

어수영(2004)은 잉글하트가 주도하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의 1990년, 1996년, 2001년 조사의 한국지역 자료를 각각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사회에서 탈물질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20대에서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¹⁵⁾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한국인의 물질-탈물질주의 연구들은 대체로 잉글하트의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인의 물질-탈물

12) 마인섭·장훈·김재환,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 구조의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13권 3호(1995).

13) 정철희, “문화적 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1995), 246~256쪽.

14) 나은영·민경환,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제4권 1호(1998).

15) 어수영, “가치변화와 민주주의 공고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1호(2004).

질주의 영향요인은 인구사회적 변수로 나타났으며, 잉글하트의 연구 결과와 같이 인구사회적 변수 중에서도 ‘세대’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기존 연구들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임순희·이교덕(2011)¹⁶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경제난 이래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은 정치사상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적인 것’으로부터 ‘돈과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 이래 식량난 등 경제난을 겪으면서 확산·심화되었으며, 부분적 제한적 체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속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의 경우, 북한 내부의 경제난을 영향요인으로 하는 물질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다만 임순희·이교덕의 연구(2011)는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북한주민의 의식을 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과 차이가 난다.

3. 연구방법

1) 조사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북한주민의 물질주의·개인주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남한주민 440명과 북한이탈주민 2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5년 4월 한 달 동

16)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세분석 2011-05(2011), 통일연구원.

안, 전문 사회조사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IRB 승인을 받은 구조화된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물질-탈물질주의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활용하였다. 넷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물질-탈물질주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에 대한 측정은 잉글하트(Inglehart)의 지표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¹⁷⁾ 이 지표에서 물질주의는 높은 경제성장, 강력한 군대/국방 유지, 사회 질서 유지, 물가 안정, 안정적인 경제 체제, 범죄예방, 국가질서 유지, 높은 수입, 직장 업무, 경제적 성공을 강조하는 자녀 교육 등을 선호하고, 탈물질주의는 국민의 정책 참여, 도시/자연환경 보전, 직장 및 지역사회

17) 길승흠,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 변화: 1963-1993년,”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3호(1992), 3133~3152쪽; 어수영, “가치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1호(2004);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2005), 193~217쪽; 신중호, “개인의 가치와 정부 정책 선호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표 1 > 물질·탈물질주의 지표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국가 경제 성장보다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	1	2	3	4	5
2	강력한 군대/국방 유지보다 도시/자연 환경 보전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3	사회 질서 유지보다 직장 및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	1	2	3	4	5
4	물가 안정보다 언론 자유가 더 중요하다	1	2	3	4	5
5	안정적인 경제체제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6	범죄 예방보다 아이디어가 중요한 사회로의 진보가 더 중요하다	1	2	3	4	5
7	국가 질서 유지보다 개인 자유 존중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8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9	직장에서 1시간 일하는 것보다 사회봉사시설에서 1시간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	2	3	4	5
10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1	2	3	4	5

회 의사결정 참여, 언론 자유, 보다 인간적인 사회 추구, 아이디어가 중요한 사회로의 진보, 개인자유 존중, 사회봉사, 훌륭한 인격을 강조하는 자녀 교육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물질·탈물질주의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변인	문항내용	문항 수	Cronbach α
물질-탈물질주의	1-10	10	.745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0.6 이상을 측정지표의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0.6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결과, 물질/탈물질주의 척도의 크론바흐 알파 (Cronbach α) 값이 .745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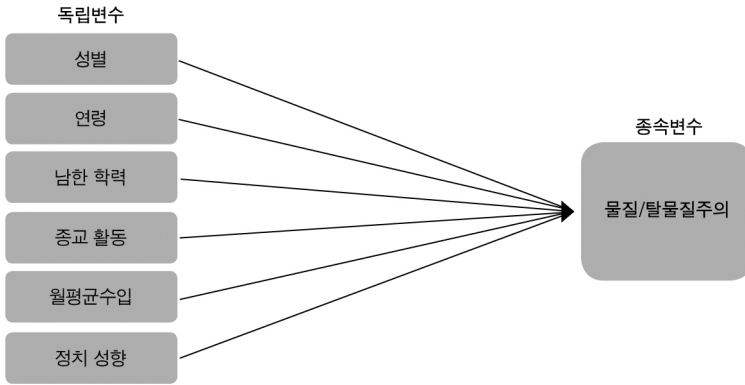
4. 연구모형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남북한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남북한 마음의 통합을 위한 탈물질주의로의 이행 방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연구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인구사회적 변수가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그림 1> 연구모형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5.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을 살펴보면, 남한주민은 남자 50.9%, 여자 49.1%,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44.7%, 여자 55.3%로 남북한주민의 남녀 성비를 비교적 유사한 쿼터를 차지하도록 구성하였다. 연령 변수는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누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도록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주민은 20대가 21.1%, 30대가 26.1%, 40대가 27.8%, 50대가 25.0%로 40대가 가장 많고 20대가 가장 적었다. 북한이탈주민은 20

<표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내용	남한주민	북한이탈주민
		빈도(%)	빈도(%)
성별	남자	224(50.9)	122(44.7)
	여자	216(49.1)	151(55.3)
연령	20대	93(21.1)	81(29.7)
	30대	115(26.1)	67(24.5)
	40대	122(27.8)	82(30.0)
	50대	110(25.0)	42(15.4)
	무응답	0(0.0)	1(0.4)
남한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2(2.8)	30(11.0)
	고등학교 졸업	199(45.2)	128(46.9)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	228(51.8)	98(35.9)
	기타	1(0.2)	17(6.2)
종교 활동	1~2회/주	99(22.3)	92(33.1)
	1~2회/월	31(6.9)	29(10.5)
	1~3회/연	56(12.6)	10(3.5)
	기타	3(0.7)	1(0.4)
	무응답	256(57.5)	146(52.5)
월 평균 수입	100만 원 이하	20(4.5)	128(46.9)
	101만 원~200만 원 이하		113(41.5)
	201만 원~300만 원 이하	52(11.7)	20(7.2)
	301만 원~400만 원 이하	100(22.5)	4(1.5)
	401만 원~500만 원 이하	117(26.4)	2(0.7)
	501만 원 이상	151(33.8)	1(0.4)
	무응답	5(1.1)	5(1.8)
정치 성향	진보적	119(26.8)	60(22.0)
	중도	240(54.0)	134(49.1)
	보수적	81(18.2)	74(27.1)
	무응답	5(1.1)	5(1.8)
합계		440(100%)	(100%)

대가 29.7%, 30대가 24.5%, 40대가 30.0%, 50대가 15.4%, 무응답 0.4%로 4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가 가장 적었다. 남한 학력의 경우, 남한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2.8%, 고등학교 졸업 45.2%,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 51.8%, 기타 0.2%로 나타나,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 과반수가 넘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11.0%, 고등학교 졸업이 46.9%, 전문대 및 대학교 졸업 이상이 35.9%, 기타 6.2%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장 많았다. 종교 활동에 어느 정도 빈도로 참여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주 1~2회 22.3%, 월 1~2회 6.9%, 연 1~3회 12.6%, 기타 0.7%, 무응답 57.5%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주 1~2회 33.1%, 월 1~2회 10.5%, 연 1~3회 3.5%, 기타 0.4%, 무응답 52.5%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서는 주 1-2회 종교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수입의 경우 개방형 질문으로 물어보았다. 그 결과 남한주민의 경우 200만 원 이하 4.5%, 201~300만 원 이하가 11.7%, 301~400만 원 이하가 22.5%, 401~500만 원 이하가 26.4%, 501만 원 이상이 33.8%, 무응답이 1.1%로 나타나, 월 평균 수입이 501만 원 이상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00만 원 이하 46.9%, 101~200만 원 이하가 41.5%, 201~300만 원 이하가 7.2%, 301~400만 원 이하가 1.5%, 401~500만 원 이하가 0.7%, 501만 원 이상이 0.4%, 무응답이 1.8%로 나타나,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응답자가 46.9%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수입 문항에서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7.4%가 200만 원 이하의 월 평균 수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한주민과의 임금 격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정치 성향을 살펴보면, 남한주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6.8%가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고, 중도가 53.9%, 보수적인 응답자가 18.2%, 무응답이 1.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2.0%, 중도가 49.1%,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1%, 무응답이 1.8%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중도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과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 남북한주민 물질-탈물질주의 비교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의 비교를 위하여 t-test를 사용하였다.

<표 4>는 물질의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의 차이를 비교한 표이다.

물질-탈물질주의 조사의 전체 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은 3.08, 남한주민의 평균은 3.10으로 나타났으며,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모두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문항의 응답에서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 또한 남북한 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하위문항 중 3가지에서 남북한 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하위 문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번 문항인 ‘국가 경제 성장보다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은 3.34, 남한주민의 평균은 3.17로 나타났으며,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349이고 유의확률이 0.019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잉글하트의 주장과 잉글하트의 탈물질주의 특성이 전제로 하고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론에 충족하는 결과라고

< 표 4 >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비교

변인	북한		남한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경제성장<국민정책참여권	3.34	1.050	3.17	.9141	2.349	.019*
국방유지<도시/자연환경 보전	2.93	1.024	3.03	.932	-1.420	.156
사회질서유지<주민들의 직장/지역 사회 의사결정참여권	3.17	.938	3.15	.909	.332	.740
물가 안정<언론 자유	2.83	1.063	2.76	1.032	.917	.359
경제체제 안정<인간적인 사회추구	3.15	.988	3.07	.980	.981	.327
범죄 예방<아이디어가 중요한 사회로의 진보	2.76	1.208	2.77	.935	-.061	.953
국가 질서 유지<개인 자유 존중	2.61	1.088	2.86	.982	-3.099	.002*
높은 수입<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3.21	1.116	3.48	.720	-3.909	.000**
직장업무 1시간<사회봉사 1시간	3.02	.923	2.95	.803	1.140	.255
(자녀교육) 경제적 성공<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3.81	.922	3.80	.680	.143	.886
전체	3.08	.517	3.10	.525	-.482	.630

*p<0.05, **p<0.01

할 수 있다.¹⁸⁾ 즉, 그러나 ‘국가 경제 성장보다 국민이 국가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문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남한주민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는데 이것은 북한체제 내에서 누리지 못했던 정책결정 참여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7번 문항인 ‘국가 질서 유지보다 개인 자유 존중이 더 중요하다

18) 김경숙, “남북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층적 문제로서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치유 소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다’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은 2.61, 남한주민의 평균은 2.86으로, 남한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099이고 유의확률이 0.002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한의 체제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남한주민들은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고, 전체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체제 특성상, 북한 내에서 성장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국가 질서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8번 문항인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의 평균은 3.21, 남한주민의 평균은 3.48로 남한주민의 탈물질주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3.909이고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는 북한에 비해 안정된 경제와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으므로 더 이상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즉, 탈물질주의로의 가치이행이 일어난 것이다. 또한 식량난 이후 북한주민들에게 나타난 물질주의로의 회귀 현상¹⁹⁾을 북한이탈주민에게 반영한다면, 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를 추측할 수 있다.

3) 물질-탈물질주의 영향요인

19) 임순희·이교덕, 2011,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세분석 2011-05, 통일연구원, 9쪽.

(1)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영향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물질-탈물질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모형 F값이 2.1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은 VIF가 10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다. 또한 더빈 왓슨(Durbin-Watson)의 결과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잔차의 독립성 조건이 만족하며, 따라서 투입된 변수들은 이상이 없다.

먼저 성별, 남한학력, 종교 활동, 정치성향은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12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763이고 유의확률이 0.007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244이므로 연령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탈물질주의는 -.244(-24.4%) 감소하게 된다.

이어서 월수입을 살펴보면, B의 값이 0.001으로 나타났다. 검정통계량을 살펴보면, t값이 2.445이고 유의확률이 0.016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베타의 값이 0.217이므로 월수입이 1단위 증가하게 되면 탈물질주의는 0.217(2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잉글하트의 가정과 이를 적용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²⁰⁾ 즉, 경제난을 경험한 세대는 물질주의 가치를 더 선호하며, 부의 증대는 탈물질주의로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20) 정철희, “문화적 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1995), 246~256쪽.

<표 5>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영향요인

독립변수	물질-탈물질주의								
	B	SE	Beta	t	p	VIF	DW	R ²	F
성별	.016	.097	.014	.165	.869	1.010	1.809	.093	2.153* (.000)
연령	-.012	.004	-.244	-2.763	.007*	1.085			
남한 학력	.009	.024	.032	.370	.712	1.033			
종교 활동	.019	.036	.045	.520	.604	1.058			
월수입	.001	.001	.217	2.445	.016*	1.093			
정치성향	.047	.039	.103	1.197	.233	1.032			

*p<0.05, **p<0.01, AdjR²=.050

(2) 남한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영향요인

역시 남한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물질-탈물질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모형 역시 F값이 3.208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VIF가 10 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으며, 더빈 왓슨(Durbin-Watson)의 결과가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잔차의 독립성조건이 만족하며, 그러므로 투입된 변수에 이상이 없다.

분석 결과, 성별, 연령, 남한학력, 종교활동, 월수입 등 대부분의 투입된 독립변수들이 남한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B의 값이 -.153, t값이 -3.445이고 유의확률이 0.001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성향이 보수적일수록 탈물질주의는 -.249(-24.9%) 감

< 표 6 > 남한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영향요인

독립변수	물질							DW	R ²	F
	B	SE	Beta	t	p	VIF				
성별	.127	.074	.123	1.719	.087	1.010	1.175	.096	3.208* (.000)	
연령	-.003	.003	-.070	-.969	.334	1.085				
남한학력	-.003	.037	-.007	-.090	.929	1.033				
종교활동	.018	.020	.064	.900	.370	1.058				
월수입	-.005	.022	-.018	-.241	.810	1.093				
정치성향	-.153	.044	-.249	-3.445	.001*	1.032				

*p<0.05, **p<0.01, AdjR²=.066

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수행되었던 남한주민을 대상으로 한 물질-탈물질주의 연구들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이 진보적 입장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다만,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의 관련 연구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일수록 탈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난다’는 경향은 본 연구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이 과거 전북대 설동훈(사회학), 연세대 한준(사회학) 교수 등이 지난 6월 전국 대학생 2000여 명을 상대로 ‘대학생 생활과 의식’ 조사결과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해당 조사결과, 한국의 대학생 중 물질주의자는 17%로 2001년(10%)보다 늘어났으며, 탈물질주의자는 9.7%, 나머지는 혼합형이었다. 즉,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물질적인 가치를 우선하고 있었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진은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 즉, 고용 없는 성장과 경기 침체 등 사회구조적 요인이 젊은 세대들을 물질적 현실주의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¹⁾

6.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주민의 마음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를 다지 고자 하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대한민국에 서 함께 살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와 그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상대적 소수자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방적 적응을 강요하는 것이 아 니라 서로 ‘마음의 통합’을 위해 ‘통합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주의 가 치관을 알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탈물질주의 로의 이행 방안을 도출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위 연구 결과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탈물질주의 고취 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물질-탈물질 주의는 ‘연령’과 함께 ‘월수입’ 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월수입이 높을수록 탈 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연령과 월수입의 변수는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 국가발전과 사회적 부를 축적하는 데에 헌신한 윗세대는 물질적 요소의 중요성을 우선시하고, 상대적으로 부를 향유한 젊은 세대들은 탈물질주의로 이행하기 때문 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경제적 상태는 젊은 세 대일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 움을 덜 겪는 젊은 연령이 탈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연령이

21) 『중앙일보』, 2004년 10월 25일.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재사회화의 어려움, 북한과 상이한 경제체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높은 연령의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체제 이행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주민의 ‘정치성향’이 물질-탈물질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구체적으로는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탈물질주의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물질-탈물질주의를 측정하는 문항은 물질주의와 탈물질주의에서 각각 우선시하는 가치를 상반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탈물질주의에서 우선시하는 모든 요소가 반드시 진보적 한국의 진보집단이 추구하는 바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탈물질주의를 추구하는 남한주민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정책 방향에 대한 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통일 논의 역시 탈물질주의로의 이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 내에서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논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경제적 이익이다. 즉,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통일 이후에 남북한이 서로의 경제적 자원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설명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탈물질주의로의 변화에 역행한다. 따라서 물질주의를 뛰어넘는 탈물질적 통일 당위성 논리를 고민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의 한계로 대한민국의 진보적 집단과 보수적 집단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입장에 좀 더 직접적인 조사와 이를 분석하는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물질·탈물질주의는 남북한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이다. 특히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의 이행은 남북한 주민의 마음의 통합을 담보하는 방향으로의 변화이다. 즉, 남북한 주민들이 사회통합의 주체로서 경제주의적 요소보다 탈물질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면 제도적 통일을 넘어 마음의 통합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3월 14일 / 수정: 4월 18일 / 채택: 4월 19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송호근,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전병재, 『인간과 사회』(서울: 경문사, 1997).

2) 논문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 편,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2호(2005), 193~217쪽.

길승흠, “한국인의 정치의식 구조 변화: 1963-1993년,”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3호(1992), 3133~3152쪽.

김경숙, “남북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층적 문제로서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치유 소통을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김명숙, “물질주의-탈물질주의의 영향요인과 정치적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편,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1호(2008).

나은영·민경환,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지』, 제4권 1호(1998).

로널드 잉글하트,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hanging Korean Society in Global Perspective,”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7권 3호(1995), 137~201쪽.

마인섭, 장훈, 김재환,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 구조의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한국과 국제정치』, 제13권 3호(1995).

신중호, “개인의 가치와 정부정책 선호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양계민,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지니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9권 3호 (2015).

양계민·이우영, “북한이탈주민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편, 『북한학연구』, 제12권 1호(2016).

이우영 외, 『분단된 마음잇기』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6).

이우영·구갑우, “남북한 접촉지대와 마음의 통합이론 ‘마음의 지질학’ 시론,”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편, 『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1호 (2016).

어수영, “가치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1호(2004).

3) 신문

『동아일보』, 2016년 11월 14일.

『중앙일보』, 2004년 10월 25일.

4) 기타자료

김형길·김정희, “소비자의 물질주의 성향과 측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39(1994), 375~396쪽.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2016).

박종민·왕재선·김영철, “환경적 가치와 신념의 근원: 탈물질주의, 정치이념 및 문화 편향,” 한국행정학회 2005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5), 388~407쪽.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통일정세분석 2011-05(2011), 통일연구원.

정철희, “문화적 변동과 사회민주화: 탈물질주의적 가치와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1995), 246~256쪽.

2. 국외 자료

1) 단행본

Barber, B. *Jihad vs. Mcworld* (New York: Corgi, 2003).

Beck, U. *What is Globalisation?* (Cambridge: Polity, 2000).

Ronald Inglehart,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2) 논문

Maslow, A. H.,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 50, No. 4(1943), pp. 370~396.

Marks, G. N. "The Formation of Materialist and Post materialist Values," *Social Science Research* 26(1997), pp. 52~68.

Richins, Marsha L., and Scott Dawson, "A consumer values orientation for materialism and its measurement: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9, No. 3(1992), pp. 303~316.

Ronald Inglehart, "The Silent Revolution in Europe: Intergenerational Change in Post-Industrial Societi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5, No. 4(1971): pp. 991~1017.

Ronald Inglehart, "Post-materialism in a Environment of Insecu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5(December, 1981), pp. 880~900.

Ronald Inglehart, "Changing Values among Western Publics from 1970 to 2006," *West European Politics*, Vol. 31, No. 1-2(2008), 130~146쪽.

A Comparison of Values between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Refugees, for the Unification of Mind: Centering on the Values of Materialism-Postmaterialism

Choi, Soon mi(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aimed to compare the materialism-postmaterialism of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together in South Korea, as an element of mind influencing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n societies. This study also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elements affecting the materialism-postmaterialism of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in order to suggest a way in which the values of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could progress toward postmaterialism to unite the minds of South and North Korea.

Results showed the average of North Korean defectors' materialism-postmaterialism to be 3.08, while the average for South

Korean residents was 3.10. Both South Korean residents and North Korean defectors demonstrated the highest average in the response to the item, 'I teach my child to be a respectable person rather than an economically successful person.' The following were the 3 subordinate items tha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item, 'Citizens' right to participate in national policy making is more important than national economic growth, the postmaterialism of North Korean defectors was higher, while for the items 'Respect for personal liberty is more important than maintaining national order' and 'Spending time with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earning a lot of money,' the postmaterialism of South Korean residents was higher. Looking 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aterialism-postmaterialism of the two groups, North Korean defectors who demonstrated higher postmaterialism were younger and had higher monthly income; South Korean residents who demonstrated higher postmaterialism had more progressive political tendencies.

Building on the finding of a previous theoretical study that postmaterialism is closer to a unified mind than is materi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residents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progress toward postmaterialism through the following measures: first, by supporting the economic activity of older North Korean defectors and providing a continuous education to relieve repulsion toward implementing a social order; and second, by making efforts to consider and share a postmaterialistic justification for unification that transcends materialism.

Keywords: South and North Korea, social integration, unification of mind, materialism, postmaterialism, Inglehart